



심층취재

“설비공사업계업역의 확대하자.”

홍보 및 세미나·현장견학 실시로
주택난방설비·개보수 공사등
활성화 도모

“올 한해동안 일반인들의 주택난방공사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펼 계획
각 시·도지부도 본회와 발맞추어 지역에서의 홍보활동을 전개기로 ”

언론지에 광고 게재로 주택설비공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본 협회는 주택난방공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결여 되어 있음을 감안, 사회에 대한 홍보 사업을 올 한해동안 적극 펴기로 했다.

본 협회 회원사들은 정부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설비공사면허업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업자가 주택난방공사의 시공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설비공사업계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의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본 협회 설비기술연구실을 주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 우선 사회의 주택난방 설비공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깨닫고 일반사회에 대한 홍보전략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협회 홍보를 지난 1월 21일 서울신문 제1면에 광고 게재를 비롯 지난 3월1일 조선일보, 및 주요 일간지, 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 주택난방 설비공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일깨워 주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지부도 지역실정에 맞는 선에서 중앙 일간지에 나가는 시기와 맞추어 각 지역신문에 이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설비공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방침이다.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일정자격을 갖춘 설비 전문업체들로 구성된 정부공인단체임을 강조

정부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설비공사 면허업 단체임을 자부

광고 문안은 「주택난방공사는 대한설비공사협회 산하의 설비전문면허업체에게 맡겨 주시면 책임시 공 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설비공사면허업 단체 :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일정자격(자본금 1억원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5인 이상)을 갖춘 국내 설비전문업체들로 구성된 정부 공인 단체입니다. 1천3백여 개의 회원사들은 시공경험과 기술 노우하우 면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모든 설비공사에 있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시공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일반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사무실, 오피스텔 등 대·소규모 빌딩의 모든 설비공사에 대해 처음 시공에서 부터 준공후의 하자보수까지 건물주와 설비업체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 드리는 교량역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 가격, 신뢰받는 기술력, 철저한 사후관리 : 일반적인 난방공사는 3백여가지의 부품이 소요되는 등 고도의 기술을 지닌 전문인만이 해낼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영세한 무면허업자들이 얇은 경험에만 의존하여 시공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낳게 하는 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중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설비공사협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정부

공인 단체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지금 주택난방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은 즉시 저희 협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후회 없는 시공결과를 책임지고 약속해 드립니다.

▲대한설비공사협회의 회원사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대한설비공사협회에 가입된 설비전문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설비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냉난방설비공사
- 급탕설비공사
- 수세식변소 설비공사
- 주방,설비공사
- 가스배관공사
- 환기 설비공사
-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절연공사
- 방음공사
- 승강기 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플랜트기기 설비공사

위의 광고문안처럼 설비공사업계는 냉난방 설비공사에서 부터 플랜트 설비공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공사범위로 다양하게 시공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범위의 공사를 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로만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어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

각 시·도지부도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

각 시·도지부도 본회의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전북지부는 지역신문인 전북일

보를 비롯 전라일보, 도민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부의 광고게재 효과는 일반인들보다는 농협이나 수협등에서 냉동 및 냉장창고에 관심을 보여와 흡족한 성과는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한다.

부산지부도 본회의 홍보사업에 대해 찬동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홍보사업과 결맞게 뒤쫓아 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구지부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꾸준히



세미나·현장견학·관련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본 협회의 인식을 제고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세미나·현장견학 등으로 주택에 있어서 설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주택난방 설비의 최신공법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계획세워

홍보활동을 편 결과 최근들어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여기에 가세하여 본회가 꾸준한 홍보활동을 펴 준다면 설비공사업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외에 인천, 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북, 강원, 충북, 제주지부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입장.

우선은 일반인들에게 「대한설비공사협회」가 있다는 이미지만 심어줘도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건물이란 일생에 한번 지을 정도로 큰 일인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보비 1억원정도 투자, 홍보 외에 세미나, 현장견학 등 추진예정

본협회는 올 한해동안 홍보비로 1억원 정도를 투자, 언론지를 통한 홍보전략 외에 설비공사업계의 현안문제 및 정부정책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수시

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므로써 설비공사업계의 활동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오는 4~5월경 각종 소비자단체나, 부인회 등을 통해 세미나 및 현장견학, 회원사 홍보등을 실시, 주택에 있어서 설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주택난방설비의 중요성 및 온돌판넬등 최신 공법을 소개하는 등 설비공사업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

설비공사업은 건설법규에 의거, 설비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아 각종 주택의 난방설비 공사를 전담하여 책임시공 하고 있는 바, 무면허 업자의 성행으로 주택난방의 시공관리 미흡, 열효율 감소 및 사후하자 발생시 책임전가 등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건물의 준공검사시 일부 시·군에서 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요구하는 예가 종종 있는데 건설부는 준공검사시 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서를 분명히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지시사항이 있었

주택난방공사는 「대한설비공사협회」 산하의 설비전문면허업체에게 맡겨 주시면 책임 시공해 드립니다.

정부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설비공시면허업체
 합리적인 가격, 신뢰받는 기술력, 철저한 사후관리
 대한설비공사협회의 회원사들만
 이력 관리 철저

주택난방공사는 시공능력과 하자보증이 최우선 설비전문 면허업체에 맡겨 주십시오

대한설비공사협회의 회원사들은 완벽함 시공을 약속합니다.

- 경기북부설비공사
- 강원설비공사
- 충청설비공사
- 대구설비공사
- 대전설비공사
- 서울설비공사
- 부산설비공사
- 제주설비공사

정부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설비공시면허업체
 대한설비공사협회
 TEL. (02) 243-7680, 214-8410

전문건설공제조합
 TEL. (02) 640-4400, 7

대한설비공사협회 산하
 건설비공사협회 사·도지부 사무국

설비공사에 대한 홍보강화로 설비공사면허의 공신력제고 및 설비공사업체의 업역확대, 권익신장을 도모토록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 2월4일 재차 행정지시 한 바 있다.

이처럼 무면허 시공업체의 성행으로 설비공사업체의 정당하고도 고유한 영역까지 침해 당하고 있어 설비공사에 대한 홍보강화로 설비공사면허의 공신력 제고 및 설비공사업체의 업역 확대, 권익신장을 도모할 계획인 것이다.

무면허업체의 시공 단속으로 업역 확대 도모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법정 업체로서 하자보증제도는 다음과 같다.

설비공사업 면허 기준요건상 하자보수보증제도로 첫째 자본금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 이상 보유의 무화 둘째,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약 6

천만원)이상 보유의무화 ▲ 난방설비공사 완공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제도로 첫째, 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공사협회 회원 출자금 250억원)의 하자보수 이행 보증증권을 발주자에게 발급, 둘째 공사금액의 3/100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여 즉시 하자보수이행함, 셋째 공사완공후 2년이상 동안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엄격히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철저히 한다(예산회계법 제71조 등에 의거)

그동안 설비공사업체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와 더불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1일 조선일보의 광고를 통해 설비공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나마 알았다는 정병희(회사원·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41)씨는 “주택난방공사를 할 때 일반인들은 어느 것이 면허업자인지를 쉽게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아파트단지 전체가 연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했을 때도 무면허업자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해 봐야겠어요.”라고 말하

설비공사업체의 시공분야인 가정 난방설비 및 유지보수쪽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설비공사업체는 더욱 신장될 것으로 전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와 2년간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준수하는 대한설비공사협회 회원사들

며 앞으로는 주택난방에 대한 안목을 넓혀야겠다고 덧붙였다.

가정 난방설비 및 유지 보수공사에도 눈을 돌려야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은, 우리 회원사의 법정 업무 영역이며 시장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사의 눈길이 미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미개척 분야인 가정 난방설비 및 유지보수공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동락 본협회 회장은 “회원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주택 난방공사의 건물개보수 공사에 눈을 돌린다면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한다.

국내 건설경기가 70년대 중반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했었던 것을 감안 할 때 15~20년 된 건물들은 이제 설비의 수명이 다 되어 개보수할 때가 왔다고 보여진다.

이회장은 실제로 주택난방의 개보수공사 시장을 수조원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는데 “우리 회원사들

이 이 시장에 적극 관심을 둔다면 소비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본협회가 전국 회원사로 부터 지난 1990년도에 설비공사 수주실력을 잠정 통계한 결과, 약 1조6,132억원(2월19일 현재)으로 집계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조1,622억원 보다 38.8%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과 관련, 건설시장의 호황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회원사들이 주택난방의 개·보수 쪽에도 신경을 쓴다면 앞으로 설비공사의 실적은 급신장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게 될 때 설비공사업체의 권익은 더욱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설비공사업체는 본 협회의 탄생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있으며 권익신장, 업역확대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협회의 이러한 홍보강화 노력은 머지 않아 설비공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설비공사업체는 내다보고 있다.